

수박이 너무 달아서

칠월의 여름, 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빛을 정통으로 맞으며 야채가게 여주인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있었다. 땀이 코와 볼에 맺히고 목에는 머리카락이 들러붙었으며 등에 난 땀으로 윗옷의 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허벅지가 달라붙는 숨 막히는 여름의 땡볕더위였지만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의 지폐 바꿔치기에 당해 내 돈 오만 원을 순식간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이 가게에 온 것을 이미 여러 번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삼십분 전 나는 분명 지갑에서 노란색의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서 오른쪽 골목에서 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가게주인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돈을 먼저 받아 허리에 차고 있던 까만색 전대 속에 넣었다. 만 원짜리가 필요했던 나는 오만 원을 내고 평소 사던 대로 샵브샵브용 야채 몇 천원어치만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겠다고 생각까지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야채를 다 고르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대뜸 가게 주인이 자신은 오천 원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아침에 계획해서 넣은 오만 원을 빼낸 지갑은 비어있는데 오천 원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우연히 한 번 야채를 구입한 뒤에는 꼭 여기에서만 샀었다. 야채가 정말 싱싱하고 양도 많이 줬기 때문이다. 상추 이천 원 어치를 사면 짹 짹 검은색 비닐봉투가 두 봉지였다. 동생도 일부러 이쪽으로 심부름을 보냈었고 나도 일주일에 한번은 다녀갔기 때문에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게 주인의 뻘뻘함에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 겪는 일이어서 대응방법이 조금도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기가 장사를 몇 년이나 했는지 아냐면서 자기는 받은 돈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저도 기억력 좋아요. 제가 분명히 오만 원 냈어요. 내가 어느 쪽에서 가게로 들어왔고 어떻게 돈을 내었으며 가게 주인이 전대에 돈을 넣은 모습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아니라고 한다. 제가 진짜 냈다니까요. 내 말을 튕겨 내기라도 하듯 손을 허공에 두어 번 젖는다. 이 와중에 좁은 가게에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나는 입구에서 조금 자리를 옮겨 서있고 가게주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야채를 팔고 있다. cctv를 보자고 하니 어이없게도 없다고 했다. 주변을 보니 골목이 좁아서 가게 입구가 찍힌 cctv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반대편에 있는 정육점으로 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마침 정육점에는 컬러cctv가 3대나 있었고 길이 좁아 녹화범위 안에 야채 가게가 있었다. 사장님은 더운데 고생한 다며 물을 주셨고 정육점 사장님 부부와 나는 cctv를 돌려보았다. 잠시 후 화면 속에는 약 한 시간 전의 땀에 젖지 않은 내가 등장했다. 그래 내 기억이 맞았다. 나는 가게에 오자마자 지갑을 열어 가게 주인에게 지폐를 건네주려고 하고 있다. 이제 지폐의 색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인지 야채 가게에서 쳐놓은 천막의 귀퉁이에 정확하게 내 손이 가려져 내가 주인에게 준 지폐가 보이지 않았다. 아..! 하는 탄식이 동시에 나왔다. 정말 조금만 옆으로 아니면 조금만 앞으로 나와 있었더라면. 내 표정을 본 정육점 사장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경찰이 와도 못 찾는다고 하셨다. 잊어버리라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며 종종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웬만하면 카드가 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무 허탈했다. 나는 쓰러지고 싶은 무력감을 이기며 정육점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야채가게로 갔다.

다시 온 나를 야채가게 여주인은 본체만체 결눈질로 볼 뿐이었다.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냥 마트로 갈 걸 여기 야채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괜히 시장으로 와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 사람들도 참 멍청하다. 이렇게 해서 손님을 잃으면 알 낳는 거위를 갈라버린 꿀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야채가게 주인의 남편이 자전거를 세우고 온다. 헬멧도 벗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한다. 그냥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가 시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나이도 먹고 요즘은 깜빡깜빡 한다고. 그래도 평생 남의 돈 욕심 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난다고하면 나중에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야채가게 여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픈 사람처럼 앉아있다. 듣자하니 성질이 더 난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무슨 자랑이예요? 아저씨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그거랑 제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받아야 된단니까요. 소용이 없다. 이제 아픈 사람은 내가 될 판이다.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범벅이 되었다. 그래 그만 하자. 어느 덧 머리 위의 해는 옆으로 비껴있다. 나는 지갑에서 공무원증을 꺼내어서 가게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저 공무원이예요. 저 기억력도 좋고 진짜 거짓말 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야채가 좋아서 일부러 여기 다니는데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예요. 돈은 돌려받았다고 생각할게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은 사람이어서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질은 인정하고 다시 가게를 찾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게 주인도 양심에 조금의 가책은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게를 나와서 내가 왔던 골목으로 걸어갔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 하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햇빛 아래 오래 서있었던 것도 지치고 지금 시대에도 우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어지러웠다. 오만 원은 나에게 정말 큰 돈이었기 때문에 속이 탔다. 지금까지 야채가게에서 덤으로 얻은 것을 다 합해도 오만 원이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걸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얼굴의 땀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휴지를 찾기 위해 가방에 손을 쏙 넣은 순간. 부정하고 싶은 감촉이 느껴졌다. 돈이었다. 내 지갑 모양대로 접힌 오만 원이었다.

이제야 물밑 듯이 생각이 차올랐다. 나는 골목을 들어오며 잔돈을 받을 생각에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놓았다가 골목 중간에서는 급한 일이 아니니 다음 주에 천천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채가게에 야채를 사면 딱 떨어지는 오천 원을 낸 것이다. 청경채 2,000원, 알배추 2,000원, 버섯 1,000원. 총 5천원. 나는 골목을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엄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늦기 전에 얼른 가서 사과드리라고 하셨다.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러나 정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막 웃던 친구도 가서 사과 해야지 어찌겠냐고 했다. 나는 아파트를 나와 길 건너 약국에 들러 비타민 음료를 한 상자를 샀다. 가게에 도착하니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 주인 부부가 계셨다. 부채질을 연신 하시면서 반찬 두서너 가지에 밥을 드시고 계셨다. 내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멍칫 하셨고 나는 가게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한테 오만 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주인 부부는 밥을 드시다 말고 나오셔서 연신 고맙다며 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맙다고 잘했다고 웃으셨고 내가 내미는 비타민 음료를 보시고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괜찮다고 와줘서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샵브샵브용 야채 사러 온 거 안다고 온 김에 더 가져가라고 이것저것 가방에 막 넣어주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입술을 세게 물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는 그물에 담긴 작은 수박도 하나 들려있었다. 가져가서 동생이랑 먹으라고 그리고 꼭 또 오라고. 야채 가게에서 인사를 마친 나는 이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정육점으로 갔다. 정육점 사장님께 오만 원은 나한테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듣는 정육점 사장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집으로 가서 씻고나와 동생이랑 수박을 갈라보니 아주 새빨갭게 잘 익은 수박이었다. 갑자기 웬 수박이냐고 물어보는 동생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시장에 있

는 야채가게 갔다 왔거든. 야, 근데 난 살면서 내가 제일.....여기까지 밖에 말하지 못하고 수박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수박이 너무 달아서 또 눈물이 났다.